

유튜브[임마누엘교회 율현동], 카카오톡 채널[임마누엘교회]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정기기획위원회
오늘(11일) 2부 예배 후 담임목사실

3 제 7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생 [모집]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훈련합니다.
기간 9. 8(토)부터 16주간
대상 양육수료자
등록비 4만원(교재비 포함)
훈련시간 토요일 오전 9시
신청기간 8. 18(주일)까지 신청서 로비

4 담임목사
8. 12(월) - 16(금) 휴가

새가족 환영

God bless you

임마누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010.3880.7209
변희주 권사

예 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일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일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시는 길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교병선목사
익산벧엘교회 마준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06378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3길 7
T 02.3411.1918

www.immch.or.kr

SINCE1982.4.11
제24-32
2024.08.11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Immanuel
FRIDAY

금요일 말씀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기도에 순종하고 기도로 연합을 이루며
기도로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자리에 초청합니다.

기독교대안관리회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김 영 광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장인환 권사 2부 마승초 장로
성경	사도행전 15:30-41(새번역)	사회자
찬양대	너 시험을 당해	임마누엘찬양대
설교	용납되지 않을 때	김영광목사
*봉헌과결단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8/18 1부 전현진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8/25 1부 정기평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열왕기하

유한나 목사 김경현 목사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 예 배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은혜
말씀_사도행전 15:36-41



예루살렘 공의회가 만장일치로 끝났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안디옥교회로 갑니다. 이 때 유다(바사바)와 실라가 파송을 받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전달된 편지는 교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보자!'고 이야기합니다.(36절) 그런데 이곳에서 그만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바나바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마가가 선교 도중 되돌아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심히 다투고 각각 다른 길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켰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때, 바나바가 나서서 예루살렘교회로 바울을 불렀고, 그를 대변하고 도와주며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정예배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를 때, 바나바는 그 옆에서 바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었던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잘못된 행동만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자 입니까? 아니면 선을 긋고 배척하는 자 입니까?

이 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툼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가십니다.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실라를 각각 다른 곳으로 보내어 더 멀리, 더 많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롬8:28)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고, 때로는 다투고 갈라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내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2) 나의 악함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선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헌금-김바울감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